

Books Review

산책

New Books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실용 가이드 **Ship It!**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계 윈도우와 MS 오피스 등과 같은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전 세계 개인용 PC 운영체제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면서 고속 성장을 한데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높은 품질과 적합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높은 품질과 적합성은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발견하여 수정하고, 기능을 추가하는 협동 개발자 역할을 수행하는 큰 규모의 사용자 커뮤니티에 의한 세심한 피어 리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웹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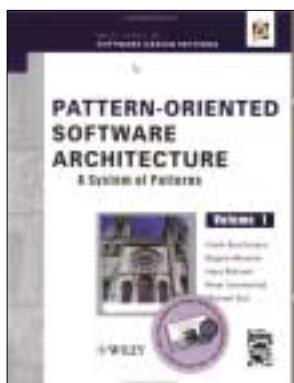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개월 단위로 개발 사이클을 단축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국내에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글로벌 동향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있고 이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과제임이 틀림없다.

본지 필자로 활동 중인 최재훈씨가 옮긴 'Ship It!'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사항들을 가이드 형식으로 차근차근 설명한다.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일정대로 출시할 수 있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아이디어, 기법 그리고 전략을 구성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세심하게 풀어내 읽는 이와의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 또한 핵심을 간단하게 배우게 될 것이다.

규칙에서 발생된 프로토콜 시스템인 핵심은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수 있도록 더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 해준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올바른 방법'은 없지만 이 책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으므로 개발자 혹은 관리자,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한번쯤은 읽어보아야 할 것 같다. Manage It!이나 Release It! 등 관련 시리즈의 번역서도 출간을 기대해본다. 자레드 리차드슨, 월 그월트니 주니어 저/ 최재훈 역/ 위키북스/ 244쪽/ 2만원



화제의 해외서적



Frank Buschmann,
Regine Meunier, Hans Rohnert,
Peter Sommerlad, Michael Stal 저
WILEY / 1997년 3월 1일 발행
\$9.62

POSA1(Pattern Oriented Software Architecture Volume1)

이 책은 여러분이 패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봄직한 것이다. 이를바 'POSA (포사) 시리즈'라고 부르는 첫 번째 볼륨(Volume)으로 GOF Design Patterns의 구조 패턴들보다 큰 개념인 시스템 단위의 구조 패턴(Architectural Pattern)을 설명하는 책이다.

GOF의 Pattern들은 유연하며, 확장 가능한 기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POSA1에서 다루고 있는 구조적 패턴은 시스템의 견고한 구조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둔 책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유닉스의 파이프(Pipe)와 필터(Filter), TCP/IP 또는 윈도우 커널(Windows Kernel)의 레이어(Layer)와 같은 큰 구조를 설명하는 패턴이다.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이 책이 나온 출판년도인데, 1996년 이후에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책을 읽으면, 현재 매우 많은 프레임워크(Framework)들이 POSA1의 패턴을 참고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게 된다. 그 만큼 이 책에 나오는 패턴들은 바람직한 소프트웨어 구조를 잡을 때 영향력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POSA1에서 소개하고 있는 몇 가지 패턴들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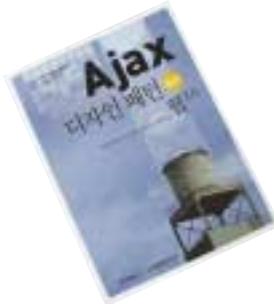
- **Reflection Pattern** : 런타임 시에 특정 정보를 로딩해 객체를 만드는 기술로 딛넷과 자바 모두 Reflection이라는 Namespace로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분산 객체의 Dynamic



왁자지껄 블비는 카페의 특별한 운영자 수업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나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에 고민하는 운영자들을 위한 책이다. 준비된 카페 운영자만이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저자의 말처럼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익힐 수 있는 카페의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가 망라돼있으며,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고단수 심리전과 전략도 소개한다. '생생한 카페지기 현장 인터뷰' 코너를 통해 멋진 카페를 꾸미기 위한 전문가들의 카페 운영 노하우를 체험할 수 있다.

박지영 저/ 성안당/ 408쪽/ 1만9,800원/ 전체 6부



Ajax 디자인 패턴 for 웹2.0

디자인 패턴으로 Ajax 프로그래밍의 노하우를 익힌다. 이 책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Ajax를 사용하는지를 패턴으로 정리해 놓아 Ajax 기술의 핵심인 XMLHttpRequest, DOM, JSON 등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예제에 기술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Ajax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Ajax 자체의 유용성과 기본 개념을 정리하기가 한결 쉽고 개발에 앞서 사전에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마이클 미헤모프 저/ 정석모, 김지원 역/ 한빛미디어/ 788쪽/ 3만원/ 전체 5부

프로그래밍 관련 베스트셀러 순위

순위	도서명 / 출판사
1위	Debugging Applications for Microsoft .NET and Microsoft Windows[재출간판] / 정보문화사
2위	Head First Design Patterns : 스토리가 있는 패턴 학습법 / 한빛미디어
3위	Real-Time Rendering 2판[재출간판] / 정보문화사
4위	실용주의 프로그래머 : The Pragmatic Programmer[재출간판] / 인사이트
5위	윈도우즈 API 정복(개정판) : 제1권 / 한빛미디어
6위	CODE COMPLETE 2/E / 정보문화사
7위	GREAT CODE 제2권 로우레벨을 고려한 프로그램 최적화 / 에이콘
8위	C++ Standard Library : 튜토리얼 · 레퍼런스 / 정보문화사
9위	윈도우즈 API 정복(개정판) : 제2권 / 한빛미디어
10위	More Effective C++ / 인포북

* 강남컴퓨터서적(kangcom.com)을 통해 판매된 프로그래밍 관련 서적 순위.

Invocation(Proxy 객체 없이 런타임 시에 객체를 생성해 호출하는 기법)을 이용해 보았다거나, 메타데이터 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을 선호하는 개발자라면 내부적으로 Reflection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 Broker Pattern : 이 패턴은 Black Board 패턴과 함께 POSA1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패턴으로 꼽힌다. Broker 패턴은 시스템의 변화를 쉽게 수용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상호 이질적인 시스템을 통합하고 관리할 때 사용되는 패턴이다. 대표적인 활용 예로는 CORBA의 ORB(Object Request Broker)와 최근 SOA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ESB(Enterprise Service Bus)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파이프와 필터, 운영체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레이어 아키텍처들을 여러분의 시스템에 적용해야 한다면 많은 변수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책은 설계자의 관점에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 훌륭한 조언을 제공한다. 아울러 이 책을 좀 더 잘 소화하기 위해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몇 가지 조언을 적어 본다.

첫 번째, Implementation(구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패턴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2장에서는 Implemen-

tation(구현부)을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 선배 개발자들의 노하우와 문제 해결의 노력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 유용하다. 두 번째 책 후반부가 더 진국이다. 후반부에는 패턴 하나하나가 아니라 패턴간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해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구축에서의 고려 사항들이 친절히 소개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 번 다시 읽어볼 것. 이 책을 반드시 두 번 이상 정독하고 그 내용에 대해 주위 사람들과 토의하길 권한다. GoF와 POSA1, 2는 두 번 읽을 때 여러 가지 새로운 깨달음을 선물한다.

이 책은 절대적인 진리를 담은 책도 아니고, 패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패턴을 실제 시스템에 대해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과 이상과의 괴리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책보다 깊이 다루고 있으므로 아키텍트를 꿈꾸는 개발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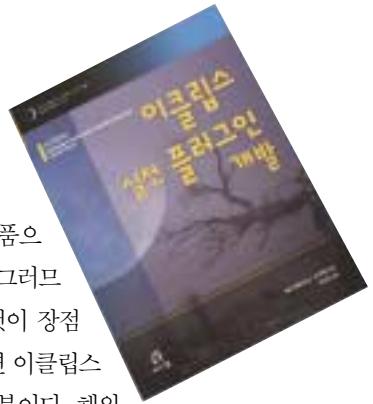
손영수 indigoguru@gmail.com | Microsoft MVP와 Devvia Architecture&Design 섹션의 시설로 활동 중이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가진 지식을 공유하는 자세만큼은 누구보다 부자라고 자평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소프트웨어공학에 관련된 세미나와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 A&D Eva의 리더이다. 세계적인 패턴 학회인 PLOP을 국내에서도 만드는 것이 꿈이다.

이클립스의 이해에서 실전 응용까지

『이클립스 실전 플러그인 개발』 역사 양석호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 이 책의 기본 목표는 제품으로 팔 수 있을 만한 플러그인을 만들기 위한 기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발 문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경험적인 부분이 풍부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이클립스 플러그인 개발에 입문하려는 독자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클립스의 복잡한 API를 핵심 구성 요소별로 한눈에 들어오는 그림으로 정리한 부분이다. 해외 독자 서평에서도 이 그림 덕분에 이클립스의 실제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종종 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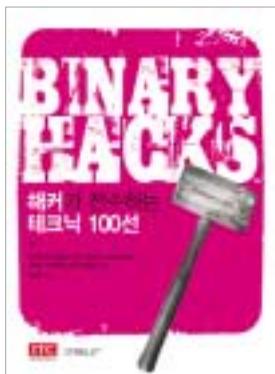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기 위한 개발 과정에서 이클립스 플러그인이 차지하는 바는? 사실 이클립스 플러그인이 결과물의 품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이클립스나 플러그인이나 편의성을 위한 도구일 뿐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자바 개발에서는 개발 도구나 프레임워크의 범람이 개발자를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데 적절한 플러그인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개발 도구 및 프레임워크 적용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 결국 플러그인 자체가 품질을 향상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개발 도구의 적극적인 활용이나 프레임워크 적용에서 실수 방지 등으로 최소한의 품질 기준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올바른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면? 이 책은 이클립스 플러그인 개발 입문자나 숙련자 모두를 위한 책이다. 입문자에게는 개발 환경 설명부터 SWT/JFace를 거쳐 다양한 플러그인 개발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숙련자에게는 분야별로 플러그인 개발 노하우를 참조할 수 있는 참고서이다. 자습서 형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일단 따라하면서 감을 잡으면 좋을 것 같다. 저자들의 홈페이지

이 책의 발견

Binary Hacks : 해커가 전수하는 테크닉 100선 소프트웨어의 저수준 기술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노하우



Satoru Takabayashi,

Fumitoshi Ukai 저

진명조 역/ 2007년 7월 발행

2만4,000원

Ajax의 등장으로 웹2.0과 블로그가 웹의 중심축이 되어 개발자들을 자극시키고 있는 요즈음, Binary 2.0을 제창하며 소프트웨어 본질에 좀 더 가까워지려는 사람들이 있다. 2005년 일본에서 개최된 Binary 2.0 컨퍼런스를 계기로 지난해 오라일리 저팬에서 출간된 'Binary Hacks : 해커가 전수하는 테크닉 100선'은 출간 한 달 만에 5,000부 이상 판매되면서 저자와 IT 출판업계를 놀라게 했다. "저수준 프로그래밍 기술"을 내세우며 IT 업계의 최신 흐름을 역행하는 듯한 반응을 일으킨 책. 과연 해커는 어떤 테크닉을 전수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 책은 오라일리의 Cookbooks, Developer's Notebooks, In a Nutshell 등의 시리즈와 함께 대표되는 Hacks 시리즈 중 한 권으로, 0과 1로 압축되는 바이너리라는 관점에서 유닉스 및 GNU/리눅스 플랫폼 기본의 저수준 프로그래밍 노하우를 소개한다. Hacks 시리즈의 특징인 기본용어설명과 참고문헌을 포함해 100가지 Binary Hacks를 사전식으로 구성하였고, 각 Hack에 대한 난이도와 관련된 Hack의 번호를 기재해놓아 특히 관심이 있다거나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 독립적으로 찾아 익힐 수 있다.

이 책의 특징은 GNU/리눅스 시스템의 초심자에서 고도의 테크닉 지식을 갈망하는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독자들이 익힐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Binary Hacks에

지(<http://www.qualityeclipse.com/>)에는 책과 관련해 예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가 있어 적절히 활용하기 바란다.

‘네이버 이클립스 플러그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을 비롯한 수많은 이클립스 플러그인 개발자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_ 사실 국내에도 상당한 수준의 이클립스 기반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고, 그만큼 실력 있는 이클립스 플러그인 개발자가 많음에도 정보 공유는 활발하지 않다. 적극적으로 나서 활성화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지금 시작하는 이들은 1년 전과 달리 관련 서적이 많이 늘어 진입장벽이 조금이나마 낮아졌으나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는 만만히 볼 플랫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클립스는 오픈 소스이면서 완성도가 높은 프로젝트인 만큼 처음엔 다소 어렵더라도 소스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다. 이클립스 소스를 전부 보고 이해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클립스 실전 플러그인 개발

이클립스 플러그인 개발 노하우를 전달하는 참고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클립스의 플러그인 개발 과정을 다룬 책. 이클립스를 처음 사용하는 이들을 위해 개발도구 사용법을 전하고 어느 정도 익숙한 독자에게는 이클립스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전하는 참고서 역할을 함으로써 이클립스 기반 제품의 품질 향상을 돋는다. 이클립스 3.1과 3.2 AP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예제 코드를 다시 작성했고 관련된 API 설명, 디어그램, 화면 예시도 새롭게 개정했다. 에릭 클레이버그, 댄 루벨 저/ 양석호 역/ 에이콘/ 856쪽/ 3만5,000원

서 사용하는 기술용어에 대한 해설에서 오브젝트 파일을 다루는 GNU Binutils 사용법, GNU 개발환경 등에 대한 사용법과 용례는 물론, 각종 툴의 작동원리까지 곁들여 보다 깊은 내용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또한 오늘날 프로그래머의 주요한 과제인 보안 프로그래밍 관련 유용한 툴과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과 대안 등을 소개하고 실행(runtime) 중에 프로세스, 공유 라이브러리 등을 제어하는 등의 해커 수준에서 접할 만한 고난이도의 내용을 흥미롭게 다루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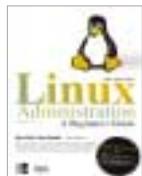
리눅스 시스템을 비롯한 서버, 네트워크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면서 GNU Binutils 등을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곤 하는데 이 책에서는 툴의 사용법과 내부구조, 원리를 함께 설명하고 있어 툴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대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향후 툴의 사용법이 변하더라도 내부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노하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역자의 말처럼 “해커들의 비밀스러운 기법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수준 프로그래밍의 벽을 한 단계 끌어내렸다”에서 이 책은 필요조건의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필요충분조건으로 채워지기 위한 충분조건은 독자의 몫임에도 ‘Binary Hacks’는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주리라 확신한다.

홍석범 antihong@tt.co.kr | 오늘과내일에서 시스템/네트워크 보안을 총괄하고 있으며 보안관련 집필 및 각종 교육 기관 세미나에 출강한 바 있다. 2004년 보안관련 활동이 인정되어 정부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기대되는 책

리눅스 관리자 가이드



사내 리눅스 서버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면 이 책을 통해 개인용 컴퓨터는 물론 회사 내 전체 네트워크 구성 빠르고 부드럽게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 레드햇 리눅스는 물론 수세 리눅스의 설치부터 각종 설정과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실제 예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원도우와 리눅스를 상호 연동하기 위한 리눅스 방화벽 설정 절차나 LDAP 사용법, 프린팅 기법, 삼바 서비스 운영 방법, VSFTP 서비스 운영 방법 등을 쉽게 배울 수 있다.

Steve Shah, Wale Soyinka 저/ 이종우, 류연승 역/ 사이텍미디어/ 704쪽/ 2만8,000원

쉽게 배우는 JRuby on Rails



처음으로 JRuby on Rails를 다룬 이 책은 JRuby 1.0을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총 9일 분량의 예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제는 단순히 따라하는 것 이 아닌 일부는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라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는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루비 온 레일스를 적용하려는 이들에게는 기존 자바 시스템을 활용하면 서도 루비 온 레일스의 기민한 개발 능력까지 겸비할 수 있겠다. 책에 실린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토론하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고쳐나간다면 어느새 ‘고수’가 되어 있을 것이다.

Arton 저/ 이창신 역/ 위키북스/ 260쪽/ 2만원

GREAT CODE 제2권 로우레벨을 고려한 프로그램 최적화



고급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가 컴파일러를 거쳐 어떤 식의 기계어 코드로 바뀌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료 구조나 상수, 변수가 실제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연산이나 제어 구조가 기계어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컴파일러는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수행하는지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코드상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차이가 컴파일된 후의 기계어 코드에서는 얼마나 큰 차이가 되어 돌아오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

랜달 하이드 저/ 이건호, 안병규, 박철현, 임중근, 심지웅 역/ 에이콘/ 632쪽/ 3만원